

2007. 03. 21~03. 22  
제134회 임 사회

# 시정질문 답변서



제 천 시

#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일시	의원명	질문내용	답변자	비고
계	5명	13건		
3. 21 (수)	박성하	1. 제천시의 인구감소 대책과 원주시, 충주시의 팽창에 맞설 우리시의 대책은?	시 장	①
		2. 제천시의 현장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따른 우리시의 대책은?	시 장	
		3. 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기관 취소사유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부 시 장	
		4. 바이오밸리 공업용수 대책과 입주업체 지원 대책에 대하여?	부 시 장	
	5. 의림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미래경영 본부장		
	성명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에 대하여?	투자유치팀장	②
3. 22 (목)	조덕희	1.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세부질문 2가지) 2. 결혼가정에 대한 실태 및 향후 지원계획은?	부 시 장	①
	양순경	제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세부질문 4가지)	시 장	②
	권건중	1. 재래시장(중앙시장, 역전시장, 약초시장, 고추시장) 활성화 계획은?	시 장	③
		2. 제천시민의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은?	투자유치팀장	
		3. 한방엑스포를 대비한 한방건강식품업체 공동 홍보관 및 상설전시판매장 개설계획은?	한방산업팀장	
		4. 태백선철도 이설에 따른 동부권 지역의 향후 중장기적 개발계획에 대하여?(세부질문 4가지)	미래경영 본부장	

# 답 변 서

질문의원	박 성 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시 장 엄 태 영
제 목	1. 제천시의 인구감소 대책과 원주시, 충주시의 팽창에 맞설 우리시의 대책은? 2. 제천시의 현장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따른 우리시의 대책은?
<p><u>질문요지</u></p> 1. 충주~원주간 열차노선이 계획되고 원주시, 충주시의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제천시는 고립되고 인구감소는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 자명한 일인데 이에 대한 인구감소 대책과 원주시, 충주시의 팽창에 맞설 우리시의 대책은? 2. 제천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자랑으로 여기고 교육에 지대한 관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천의 현장(유치원, 초, 중, 고)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p><u>답변내용</u></p> 1. 제천시장 엄태영 입니다. 우리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성하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제천시의 인구감소 대책과 원주시, 충주시의 팽창에 맞설 우리시의 대책, 그리고 제천시의 현장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따른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충주~원주간 열차노선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달 2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시 제기 된 내용으로서,	

- 이는 과거 국토종합 제4차 수정계획 수립시 국가계획상 사선축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제외된 사항으로서 충주시에서 이번에 또 다시 거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즉각 용역기관에 항의하여 충북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충북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행복도시~충주~원주로 이어지는 충청권고속도로와 철도노선에 대하여 동시에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과 공조를 통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금월 우리시를 방문하는 충북 도지사님께 행복도시~제천~평창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특별 건의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5월경에 최종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어 우리의 논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인구감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저출산과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이와 더불어 원주, 충주의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가 본궤도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시의 지역경제 위축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근 충주, 원주의 팽창은 우리시에 큰 위기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 하지만 우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선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5년, 10년 후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 저는 이미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 두 도시와 중첩이 되지 않고 21C 유망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방 산업과 영상산업을 우리시의 최우선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인근 원주시와 충주시가 점차 커지고는 있지만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분명 특색화 된 전원 휴양 배후도시로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며 다각적인 전략과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발굴, 그리고 교육과 문화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의지와 실천을 강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와 더불어 SOC 확충을 비롯한 웰빙휴양타운 건설, 종합 연수타운 건설, 전원회귀 거점도시 육성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 특히, 차별화된 4계절 축제 등 웰빙시대에 걸 맞는 경쟁력 있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과 특히 이 두 도시를 적극 공략하는 틈새시장 개척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제는 상호 협력을 통한 윈윈 전략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간 연대와 교류 활동에도 정성을 다 할 것이며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점과 교통의 편리함을 집중 홍보하여 유망한 기업체 유치와 함께, 천혜의 풍광을 이용한 전원 휴양도시로서 중부내륙권 관광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정의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 앞으로 시에서는 분기별 산업별 투자유치 동향과 매월 인구이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한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 대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무엇보다도,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 판단하고, **민선4기 공약의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일자리 창출 10,380개 달성**을 통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제천시의 현장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따른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합니다. 이는 교육이 어느 분야보다도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일 것입니다.
-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 함께 가정 교육을 시작하면서 제도권의 학교교육과 직장 등 사회교육을 거쳐 죽는 날까지 학습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 결국 교육의 개념이 ‘평생학습’이라는 영역까지 우리사회 속에 크게 확장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 특히, 평생교육 중에서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의 제도권교육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이며, 이때 형성된 인격과 습득한 지식이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봅니다.
- 우리시에서는 자립형 지방화라는 국가전략목표의 큰 틀 속에서 평생교육이 곧 지역발전의 장기적 대안이며, 지역 브랜드 차원에서 키워가야 지역미래가 보장된다는 현실적 판단아래 2005년 정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 제도권인 학교교육과 비 제도권까지 포함한 평생교육이 함께 어우러진 학습공동체 도시로 가꾸어가고 있으며, 한방특화도시 영상문화도시와 함께 시정의 주요전략사업으로써 을인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작금의 지역교육현실을 보면**, 지난 3월 1일자 충청북도교육청의 정기 인사결과 우리지역에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가 다수 배치되었고, 이런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평생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지역에 대한 불평등과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보편성에 크게 위배되는 사례로써 심히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이제 이 문제는 금번 회기 중에 의회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적극적 대책으로 가닥을 풀어 가시는 의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장으로서 더욱 관심 있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시대에 지역이 국가성장발전에 주역이며 결국 **‘교육을 살려야 지방이 산다’ ‘교육활성화가 곧 지방자치의 성공’**이라는 기본인식하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의 주체로서 팔 걷고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입시학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해외연수와 학비일체를 지원하며 면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 경남 남해군의 경우는 지방세수입이 80억 정도밖에 안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이지만 금년도 예산총액의 2.9%에 해당하는 53억여원을 학교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작년에 이어 올해도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원어민을 활용한 초등학교 영어교육과 방학 중 영어캠프 등 운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 정보화 지원 등 하드웨어적 지원 보다 학생들의 성적 향상과 선생님들의 실력 증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겠으며, 현 교육경비조례도 지방세입의 2%에서 5%까지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남부지역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특별장학금을 지급함은 물론, 기존의 장학회를 크게 확대 개편한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장학기금을 100억까지 대폭 늘리고자 역점대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만큼은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사고 속에 우리 지역 교육현실에 대한 고민과 분명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기에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첫째**, 지역교육이 곧 지역브랜드와 맥을 함께한다는 범시민적 인식하에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물론, 초·중·고 교원 인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교육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 교사만을 위한 인사가 아닌, 지역과 학생을 위한 인사가 되도록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강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유치원, 초·중·고와 대학까지 즉, 제도권교육은 중앙정부의 지원지침과 제1회 추경예산으로 상정돼 있는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등 새로운 시자체 시책을 개발하고, 재정범위내에서 조례 등 제도적인 지원 틀을 구축하여 새로운 지원책과 지원액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생존전략은 지역특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공교육의 시작인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그리고 대학까지 우리시 미래전략사업인 한방, 영상, 평생학습의 다양한 시책과, 여기에서 전개되는 프로그램이 학교교육에 일정부분 적용되고 지역사회교육까지 파급되는 평생교육에 대한 과감한 행·재정적 투자를 하겠습니다.
- 결국 **살기 좋은 건강한 자연도시 제천**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도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역자원이 곧 교육이라고 확신하며,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교육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서

질문의원	박 성 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부시장 이 중 갑
제 목	1. 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기관 취소사유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 2. 바이오벨리 공업용수 대책과 입주업체 지원대책에 대하여 ?
<p><u>질문요지</u></p> <p>1. 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기관 취소사유, 취소에 대한 향후 대책</p> <p>2. 바이오벨리 공업용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이 미진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p>	
<p><u>답변내용</u></p> <p>1. 제천부시장 이중갑입니다.</p> <p>평소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속에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험기관 취소 사유와 이에 대한 향후대책, 그리고 바이오벨리 공업용수 대책과 입주업체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p> <p>○ 먼저, 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험기관 취소사유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소가 1996년 12월 26일자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6년 11월 23일 정부합동 점검반에서 합동 단속한 결과</p>	

- 최근 2년간(2005년 1월 ~ 2006년 11월말) 검사한 총6,919건 중 10건에 대하여 검사서 숫자의 유효자리 처리상 판정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2006년 12월 26일자로 먹는 물 검사기관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 감사부서 조사결과 담당직원이 시험상의 오차가 있음을 감안하여 자의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는 과정에서 판정결과가 엇갈리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과정에서 담당자의 고의나 검사신청기관, 단체등과의 결탁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도감독 미흡으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면 민원불편해소와 검사기관 재지정 및 재발방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우선,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수질검사민원 신청에 대하여 시료를 모아서 수시로 인근 검사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시 정수장 및 소규모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의 정기수질검사는 기존과 변함없이 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검사기관 지정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최단기간내에 검사기관으로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와함께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강화, 맞춤형 교육, 순환전보인사, 신규또는 저경력자의 일선배치 지양, 시험결과 자동출력시스템 개발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이러한 방안이 확정되면 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5개 사업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시민이 신뢰하는 수도행정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바이오밸리 공업용수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바이오밸리의 공업용수 공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제1 바이오밸리는 공업용수 라인이 설치되지 않아 제천시 기업지원조례상 공업용수로 요금적용을 하는 것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현재 입주한 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우선 공업용수요금과 상수도요금의 차액을 예산책정하여 보전, 입주업체들의 애로를 해소코자 합니다

-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성되는 제2 바이오밸리 조성 공사 시, 전용공업용수 라인을 설치하여 입주업체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안과 또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특별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와 재정부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조속히 검토해서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추후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입주기업체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기업유치보조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유유를 비롯하여 6개사에 6,635백만원(국비 2,031백만원, 시비 4,60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도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지원이 강화되도록 충청북도와의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기업유치보조금은 현재 분양용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용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임대용지 중에는 5년 임대후분양용지와 50년 임대용지가 있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나, 임대용지에 대한 지원방법으로 5년 임대후분양 시점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임대기간중이라도 시설투자비용과 고용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기업과 2년 미만의 사업영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안전성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원에서 배제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앞으로는 입주기업체가 애로없이 신속하게 공장을 건축하고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기타 지원시책, 금융알선, 세무상담, 신용보증, 구인지원 등 애로사항을 파악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활동에 활력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지역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상으로 바이오밸리 공업용수 대책과 입주업체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서

질문의원	박 성 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미래경영본부장 신 태 훈
제 목	의림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
<p><u>질문요지</u></p> <p style="text-align: center;">○ 의림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p>	
<p><u>답변내용</u></p> <p>○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p> <p>○ 의림지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2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존하는 한국최고의 농경문화유적으로 제천의 상징이자 제천시민 모두의 자긍심이 되고 있으며</p> <p>○ 우리 제천시민들은 뛰어난 주변경관과 오랜 역사성을 가진 제천의 제1명소로써 문화재적 가치를 잘 보전하는 동시에 시민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곳입니다.</p>	

- 이에 제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하면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늘 고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 최근 시에서는 의림지구변 정비사업에 '95년부터 2007년까지 103억5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장실 및 주차장설치, 여수토개량 및 인공폭포 조성, 의림지 호안석축의 자연석 쌓기 및 수변데크설치 등 사업을 통해
- 종전 보다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정비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보조저류지 주변 비포장부분의 녹지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붙임의 의림지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림지명소화사업은 의림지 인근 신떨이봉 아래쪽부터 신월~고암간 북부우회도로 사이지역에 의림지전원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 이 계획중에는 한국전통호텔건립, 테마파크 등 기본계획만 스크린한 상태로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용역결과에 의해 사업의 타당성을 깊이 검토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기본계획에서 구상하고 있는 의림지테마파크는 56,000평 정도의 부지에 총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선사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농업역사를 담아내는 전시관 3개동과 영농 및 약초재배 체험학습장, 야외농기구전시장, 의림지축소 모형의 수공간, 야생화단지 및 야외분재원, 야외이벤트광장, 2,500평 규모의 주차장 등을 도입함으로써
- 국·내외적으로 특화된 농업관련 최대의 테마파크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관광시설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 현존하는 최고의 농경수리시설의 사적가치와 농경역사 문화를 담아 관광자원화 하고자 구상하는 것이며
- 한국전통호텔 건립구상은 제대로 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호텔을 건립 시 충분한 수요의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경제성을 따져 추진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와 같은 개발구상과 더불어 문화재의 정비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제1의림지 본제방 하단의 토지매입을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우선 금년에 6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대를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아울러 의림지 보조저류지에서 ~제2의림지간의 하천을 자연친화적 체험생태 하천으로 정비하여 시민 및 학생들의 체험학습장 및 휴게공간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구체화 실행시켜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지역주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명승지는 명승지답게, 주변개발은 개발대로 조화롭게 추진하여 명실공히 국내 최대 최고의 명승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시의 의지를 밝히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림지 정비사업 추진현황(2006년까지)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0,359	3,058	810	6,491	
1995 ~'03	의림지구 주변 자전거도로	길이 : 760m 폭 : 15m	1999	830	415		415	건설과
	의림지안내판정비	2개소	2000	7			7	도시개발과
	시범공중화장실(두부마을앞)	1동 84㎡	1996	74			74	자연환경과
	우리집공중화장실(파크랜드앞)	1동 53.2㎡	'01~'02	73			73	
	솔밭공원공중화장실	1동 61.7㎡	2003	164			164	
	주차장조성(두부마을앞)	부지매입 주차장포장 및 정비	'97~'04	1,609			1,609	교통과
		기반시설공사 및 정비	'98~'01	247			247	
	의림지정밀지표조사	의림지지표조사 학술용역	2000	50			50	
의림지노송 및솔밭공원 소나무 보호사업	외과및뿌리수술, 수형조절, 토양개량등	'95~'03	242	43		199		
'03 ~ '05	의림지여수도개량사업	라바댐→전도게이트로 개량, 양수장 및 부대시설, 교량개량, 전망대, 수경분수, 목제데크 설치등	'03~'05	2,950	500	200	2,250	문화관광과
	솔밭공원교량가설	목교 11m, 폭 3m	2005	65			65	건설과
	의림지생태하천조성	생태하천조성 2개소	2005	500	400		100	건설과
	의림지난간 및 의자 설치	난간630m 의자 26개	2005	148			148	문화관광과
2006	의림지호안석축	길이 530m	'05~'06	1,000	500	250	250	문화관광과
	수변데크 및 목교설치	수변데크 255m 목교 34	2006	544	272	82	190	문화관광과
2007 계획	의림지명소화 1차사업	성곽돌쌓기 154m 공원및주차시설9,700㎡	2007	886	443	133	310	관광팀
	의림지명소화 2차사업	쉼터조성 1동, 우륵정 건립 1동, 경관조명 1 식, 수목정비,	2007	970	485	145	340	관광팀

# 답 변 서

질문의원	성명중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변자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제목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에 대하여?
<p><b>질문요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투자환경 개선방안은 무엇인가?</li> <li>2. 기업유치 추진사업과 미래전략은 무엇인가?</li> <li>3. 기업유치의 걸림돌은 무엇인지?</li> <li>4. 시장님의 역점사업인 한방산업, 영상산업의 기업투자환경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li> </ol>	
<p><b>답변내용</b></p> <p>투자유치팀장 차정민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투자환경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침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li> <li>○ 우리시에서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전행·재정력을 쏟기 위하여 전국 최초의 팀제 개편과 아울러 투자유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기업유치여건은 강점은 별로 없고 많은 약점이 있어, 타시·군보다 기업유치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li> <li>○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li> </ul> </li> </ol>	

첫째, 철저히 투자유치 여건을 분석하여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여건분석 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각 산업 별로 공략집단을 세분화하고, 유치대상기업을 확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이 우리시로 오게끔 타 시군보다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현재의 기업유치의 인센티브 제도는 타 시군과 비슷하여 비교우위 및 차별화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의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를 검토하여, 개정하고 차별화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보완하는 중입니다.

셋째, 제천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팀 뿐만 아니라, 시 공무원은 물론 시민 모두가 투자유치에 동참하고, 기업활동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기업인 예우 환경 조성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 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경영 환경조성과 신바람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 예우의 사회적 여건 조성이 선행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인 예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기업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범시민 기업사랑운동』도 병행 전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그 예로 기업인 예우환경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시장님 지시 사항인 “1사 1공무원 멘토링제”시행, 우수기업인 의전상 우대, 공공시설 기업인 무료이용, 기업제품 홍보 및 범시민 사용운동 전개, 시장과의 업종별 기업인 대표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우수기업인 정기표창 등 기업인 예우의 최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본 시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 기업유치 추진 사업과 미래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Marketing)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투자유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둘째, 제1 바이오밸리의 100% 가동 추진과 제2 바이오밸리에 대한 선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오는 5월 중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셋째, 개별입지에 특별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입지조사 및 전략을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단위 기업유치를 위한 개별입지 조사를 통하여 후보지를 물색하고, 이곳에 대기업과 선도기업, 서비스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관련회사들과 접촉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대책으로 2010년 한방엑스포 관련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한방특화와 연계한 기업 및 첨단산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전략은 한방산업팀 등 관련 팀과 협조하여 추후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3. “기업유치의 걸림들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이 직면한 걸림들은 무엇보다도 지리적인 여건, 중소도시의 한계, 청정이미지로 인한 기업 활동의 한계, 각 주체간 네트워크 미약, 개발규제(한강수계의 상류), 산업인프라 미구축, 물류비용 과다, 인구감소로 인한 투자가치의 한계 등을 들수 있겠으며,

다음으로 인근 자치단체인 충주, 원주시의 기업도시 선점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며, 후발로 제2 바이오밸리를 이제야 시작하고 있는 것이 걸림들이 아닐까 하는 판단입니다.

4. “시장님의 역점사업인 한방산업, 영상산업의 기업투자환경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과 영상산업은 제천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의 한 축으로 매우 중요한 미래성장산업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자유치 전략과는 별개로 각 관련 팀과 전략을 협의 중에 있고, 공략대상 집단을 도출 중에 있습니다.

그 지원 방안 역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장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